

## ■ ( 언론 동향 ) 2022.4.11. “한국농업신문” 보도

### ○ 비료협회, 202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

#### - 하형수 회장 “국제원자재 수급가격 안정 경영악재 해소 기대”

한국비료협회(회장 하형수)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에는 협회 회장인 하형수 남해화학(주) 대표이사와 (주)조비, (주)카프로, (주)팜한농, (주)풍농, (주)한국협화, (주)세기 등 7개 회원사 대표가 모였다.

이사회는 ▲협회 임원 선임 ▲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 계획 ▲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등 안건을 의결했다.

또 KG케미칼이 이번 총회에서 협회 회원사에 가입함에 따라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합심해 비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.

하형수 회장은 “지난해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등 여러 난제로 우리 무기질비료 업체가 어려운 시기였으나,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가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해였다”면서 “올해는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이 안정돼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비료업체의 오랜 기간 영업적자 등 경영악재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무기질비료 업체는 올해 무기질비료의 농가 보조사업 시행, 원료구입자금 대폭 확대, 요소 할당관세 적용 및 농협의 상시계약단가 조정 방안 도입 등 농정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오랜 침체 국면에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아울러 업체는 정부의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강화와 비료사용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한 신제품·신기술 등 개발에도 긴밀히 대처할 계획이다.

특히, 협회 내 무기질비료 산업발전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무기질비료의 효과성, 안전성, 경제성 등 장점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.

< 최정민 기자 >